

금주일언 바른 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릇된 업을 따르
지 말라. 갈 때나 있을 때나 누웠어도 편안
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으리라.
(법구경·세속품 20절)

東大新聞

구분: 동대신문
출판: 매일
발행: 월요일 제외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대문로 100-715)
전화: (02)260-3492
팩스: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제 1187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11월 6일 (월요일)

11

총학 1차 유세...선거 열기고조

경주 총학 후보 4개조 등록

제28대 총학생회 1차 선거 유세가 지난 3일 도서관 앞에서 1백5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뤄졌다.

먼저 유세를 한 박동민(물리4), 박창민(기공4)조는 "5-18학살자 처단의 결연한 의지로 광주문제 배후에 있는 학살자 처단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5-18학살자처단을 주장하고 "학우들과 공존할 수 있는 학생회, 민중과 함께 가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문(불교4), 황인구(아간영문3)조 역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처벌, 5-18학살자 처단 등을 주장하고 국토분단, 5-18개입, 쌀수입 개방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모습을 비판하며 "미국놈을 몰아내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유영학(산공4), 김보현(식자3)조는 동학인의 자부심 배양을 주장했고 "시대가 변했다"며 "다양화·다원

화 시대의 학생요구에 맞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서정은(약교3), 조운숙(국민윤리2)조는 "총학생회 존립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단위 여학생회의 부재"라며 "단위 건설에 대한 명확한 대안 창출"을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대용·불교4 이하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을 통해 △선전유인물은 판플렛, 리플렛, 신문 등 3종이내 △모든 유인물은 4천부 이내, 선거공통정책자료집은 6천부 이내 △선전수막은 120X1000cm이하의 2도이하, 8개 이내 △구조물은 100cmX200cmX4면을 한개로 7개이내 등을 제한했다.

한편 중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박동민, 박철민조의 1차유세도중 유인물을 뿌린 것과 유영학, 김보현조의 문화공연에 졸업생이 참여한 것

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고, 유·김조가 등록전에 도서관에 부착한 '에이급구'라는 A4용지 게시물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법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이윤수(법3) 부총학생회장장이 총학생회 1차유세때 가슴에 달은 박·박조의 표시물에 대해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3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후보자가 등록이 끝난 지난 2일 최종 확정됐다.

총 4팀이 등록한 이번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승유상(회학3)·홍성현(국사3)조 △장재봉(사책3)·김석홍(산공3)조 △장주욱(경제3)·강상수(행정3)조 △허재혁(경제3)·김용환(행정3)조 등(이상 가나다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안대수·경제4 이하 중선위)가 지난 3일 2차 불미팅을 통해 발표한 총학

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정 및 투표 일시를 살펴보면 △1차 유세=11월 16일 오후1시 녹야원 △2차 유세=11월 21일 오후1시 녹야원 △시간강자 유세=11월 21일 오후 7시 진흥관(B202) △서클 부재자(한의학과 3-4학년 대상)투표=11월 22일 △시간강자 투표=11월 22일 오후 5부터 9시까지 진흥관(B202) △선거 투표표=11월 23일 동아리 투표장소는 △불문대, 인문대=원효관(A212) △자연대=2층 로비 △법정대, 상경대, 이부대=진흥관(B202) △한의대=휴게실 △의과대=의학관 등이다.

또한 중선위는 오늘(6일) 후보자 1차 불미팅을 가치고 서부심사, 기호배정, 공동자료집, 선거세부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2차 불미팅은 오는 13일 오후5시에 가진다.

보리수

대장부(大丈夫)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장부(丈夫)라고 하면 다 성정한 사람을 말하거나 유독히 키가 커서 1장(丈) 즉 10척(尺)이나 되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평소 사나이에답게 정에 입각해서 씩씩하게 행동한다면 지니고 있다면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활달하게 생활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이를 장부라고 하거나 혹은 대장부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하여 유가(儒家)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인(大人)이라거나 군자나 혹은 성인 등으로 여기고 있는데, 특히 상대인(上大人)이라고 하여 이를 공자로 지칭한 것은 그 위에 더 이상의 어떠한 인격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장부론을 불교의 교의에서도 역시 찾아 볼 수가 있어서 주목된다. 즉 불교에서는 무엇인가에 자기일 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타주의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살을 또 장부(丈夫:Purus)라고 하거나 상사(上士)라고도 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할 것을 맹서한 부처님을 특별히 대장부(大丈夫)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가 세운 서원이 원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러한 대장부는 간데 없고 종잡부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느끼는 것은 자괴감 뿐이다. 어디에다 이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성취하신 높은 공덕에 따라 열 가지로 부르는 명호 외에 박가법(薄伽梵:Bhagavat)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를 "덕을 성취하신 신분(有德)"이나 "덕을 성취하신 분(德成就)" 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쩌면 부처님은 대장부답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셨기 때문이 이와 같이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하여 일반적으로, "대장부는 단연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대장부는 선견지명을 갖춘 안목으로 대의명분과 절의(節義)를 태산보다 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 씀씀이 또한 정순(精純)하기 때문에 생사를 사멸보다도 더 가볍게 여긴다"는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대장부는 우리 범부들이는 다른 어떤 용기와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틀림없다.

이만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뜻을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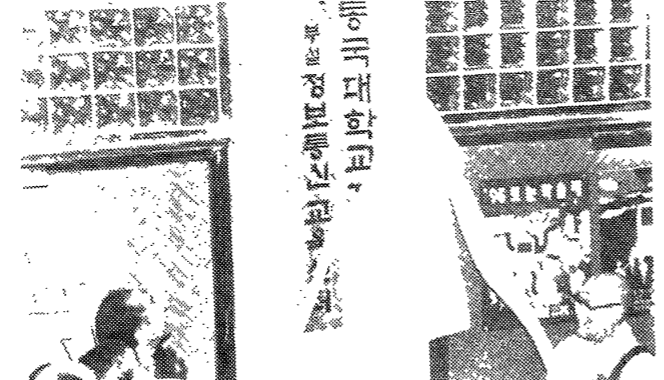
본사 자원봉사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대'의 출발의 뜻을 물었다. 첫 실천사업으로 지난 3일 진행된 중구지역 소년·소녀가장 들기에는 역사교육과, 중문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등 4개과 학생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중구청과 관동동사무소의 협조아래 진행된 이날 봉사에서 봉사자들은 신남 2, 3동과 남대문5가동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4가구를 방문해 본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활동간지과 과일 등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결연을 다짐했다.

처음이고 경험이 없는 터라 행여나 자신들의 봉사활동이 갑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던 봉사자들도 이날 일정을 마친 뒤에는 자신감과 기대로 들뜬 모습이였다. 남대문5가동에 관점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년가장 김구산(14세·한일중2)은 집을 방문한 중문과 자원봉사자 김순자 양은 "저를 우러러 첫 자원봉사자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오히려 첫 자원봉사에 당황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우며 어스프레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소년가장들과 반나절을 함께 보낸 자원봉사자들은 빠른 시일내 재회를 약속하고 아이들과 헤어졌다.

나이 서른에 가까운 광고학과 과대표 황동익형, 구산이네 집에서 저녁까지 연이었고 왔다며 미안해하는 중문과 김순자 양, 소년·소녀가장 태훈(15세·장충중3)이를 이끌고 웃가게에 들려 청바지를 선물해 주며 나가 비었다며 멋지게 웃는 신문방송학과 정수민군, 이들의 자지만 소중한 실천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더욱 많은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길 기대해본다.

(권연기사 4면)



◇(주)데이콤과의 산학협력협정에 의해 전자계산소 부설 정보통신교육센터가 지난 2일 개원했다. 사진은 교육원이사장과 손익수사장의 현판식 모습. (취재부)

1강좌이상 원어강의 실시 외국어 실력 향상 기대

본교는 96학년도 1학기부터 각 학과에 1강좌이상 원어강의를 실시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실력 강화를 취지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각 학과전공 중 언어가능 과목을 한강좌이상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원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실력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조고려대장경 구입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에서 오는 7일 초조고려대장경의 원본복판과 필사본을 구입한다.

문화재 소실로 인해 일본에 건너가 있던 초조대장경이 올해 역수입돼 한국에 들어온 것을 도서관에서 6개월 이상 구매협상을 거쳐 구입하게 되었다.

교수동정

▲하극모(식품공학)= 지난 10월 28일 한국산업미생물학회에서 학술상 수상.

▲김익기(사회학)= "한국인구의 노령화와 사회정책적 과제"발표자 지난 2·3일 양일간 국제학술회의 '세계속의 한국, 과거·현재·미래'에 참가.

▲송재운(국민윤리학)= '95 중·한 유가윤리와 당대사의 학술연설회에 "유교사상과 현대한국의 기업문화" 발표자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간 중국 남경대 방문.

▲이정호(의화)= '제28차 미국 신장학회'에 참석자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방문.

'전국대학 연구비 관리현황' 본교 A등급 판정 탄탄한 지원제도 마련으로 연구실적 향상될 듯

95년 전국대학 연구비 관리현황 평가에서 본교가 만점을 취득했다. 본교는 지난 5월31일부터 연구비 중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비를 관리해 왔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중점까지 연구비를 교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실질적으로 연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개념과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한다는 복합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상해보면 우선 대외공신력 확보를 통한 연구비 수주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보조를 하는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 학비조달의 효과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육효과도 기대된다.

연구기자재의 경우도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중복부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들 수 있다. 본교는 이제도를 통해 연구비를 관리해 이번 평가에서 만점을 취득,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으므로해서 연구비 10%에 상응하는 약42백여만원의

간접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분야에 재투자해 연구분야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교 연구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92년 약 9억, 93년 13억, 94년 15억5천, 95년 현재까지 2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연구비 수혜현황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수 신규교수의 영입과 교내 연구부위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얼마전 연구부에서 연구지원관리를 제작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 마련으로 인해 연구실적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돕는다는게 말처럼 쉽나요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좋죠!

힘든 점도 많지만 힘든만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지금 남몰래 무의탁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해 활성화되면 좋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좋아 지겠죠.

그리고 만약 돕는다면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그분들은 불우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입장을 이해하는 이해심과 인내력이 필요하죠.

그분들은 크게 무얼 바라지는 않아요. '몸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건

없나요'만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리며 무척 고마워합니다.

— 문성수 신당2동 사회복지 담당직원 —



자원봉사캠페인 기탁광고



◇지역사회 봉사활동(2차) 안내

활동내용: 자매결연-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 수용자 등
자원봉사-노인취로사업동행 활동/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봉
사 활동/위로 공연활동/불우노인우유요리 등
신청단위: 각 학과·학년 학생회/동아리/동문회·학우회/동호인 등 10인
내외의 단위
신청기간: 1995년 11월 10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본사 총무부
(전화: (02)260-3491~2 (0561)770-2057~8)

첫단추를 꿰는 고충을 감수하고 기꺼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원봉사에 참여, 열심히 봉사해주신 역사교육과, 중문과, 신방과, 광고학과 학우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보내며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선뜻 도움을 주신 공동관리위원회와 정성들여 김치를 담겨주시신 석당아주머니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9U 10번게시판이나 ID: dpress@naver.com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신고려장 시대’ 소외된 노인, 도시화 과정 희생물 “신세대의 신세대론이 그들을 더욱 슬프게 한다” 속마음 헤아리는 정이 필요할 때

어느날 드디어 산속 비위 밑에 버려야 하는 노모를 둔 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는 것 처럼 어머니를 지게 위에 지고 산길을 떠난다. 삼복 더위를 보낸 초가을의 날씨는 무섭도록 푸르고 산길을 따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아들은 말이 없고 그의 어머니는 무슨 말을 건네려고 하지만 기력이 없다. 겨우 손을 내저어 들꽃을 꺾어 지게위로 올려 놓는다. 인적이 드문 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할 아들이 길을 잃어 호환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들꽃 송이송이를 뿌려 놓는다.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화환의 눈물을 흘린다. 대중 이런 예기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다. 세계화로 나아간다는 우리 나라의 보통시민들의 인상은 윤택함이나 씩씩함이 아니라 유류업의 잘사는 나라에 비하여 배지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대부분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이들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신고려장 같은 예기가 심심찮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낯설고 어색한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선 아파트라는 것부터가 나이가 든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보급차리이다. 만일에 적어도 대안적인 노인이 지금의 서울에 시간 여행을 왔다면 무슨 말을 할까 문명의 발달을 칭찬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살아 보나 다 그런데도 뭘 그렇게 요란을 떨며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자랑하는가. 아니면 '나도 아파트라는 데서 살아 보지 못한 게 섭섭하구나' 했을까. 젊은 숙망과 겹쳐서 지내면서 온갖 종류도 아닌 잡기를 즐기면서

총대, 비민주적 운영...대의원들 외면 합리적 회칙 개정 통해 해결해야

2학기의 막바지다. 지금의 시기는 지난 1년동안 학생회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차기 학생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것은 학생회뿐만 아니라 자치기구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지난 도서관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1학기 전학대회가 어떻게 무산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대의원회의 너무나 방대한 권한에 한번 놀랐고 학생들을 믿지 못해서 학생증 검사를 하는 개교 이래 전무후무한 사태에 두번 놀라고 말았다.

현재 총대의원회가 가지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직선간부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4개 학과 학년대표의 선거로 구성되는 총대의원회의 위상이 1만학우의 직선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보다 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직접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간접민주주의는 이 직접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지난호 반박 투고 기사를 읽고 망언 계속되는 시점 왜곡된 방향 우려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읽고 넘어가려한다. "한일 합방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로 보내야 했던 참혹한 세월이 합법적이며 그로인해 정당함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을 가장 잘 알고 국민 모두가 명확하고 올바른 한·일관계에 초석이 될까라 믿어 의심치 않는 학과에서 항의도 규탄집회도 아닌 아예대공연장에서 대항소파괴를 동원하여 이러한 공연을 유도하게 하였다는 것을 중시하며 염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망언이 계속되는 시점을 뚜렷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과 정제학우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학생회장이 다른 많은 학우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기사의 내용을 한학우의 편취되고 그것만 생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봉사하는 동국인’ 캠페인 참신

지난호 동대신문(1186호)의 기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열린 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이라는 로고와 함께 실린 기획시리즈 자원 봉사 캠페인이다. 겨울이 오면 항상 겨울나기가 어려운 기간인 이웃,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가게되기 마련이다. 이에 발 맞추어 동대신문에서도 이번 5월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듯 싶다. 좋은 취지로 마련한 기획이니만큼, 4면에서 한상을 기사가 말했듯이 그저 보여주기식의 기획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너도나도 이웃돕기를 함당시키고 되려 그네들의 삶만을 노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동/문/칼/럼 '서울의 장쪽또'

나는 요즘에 와서 장 쪽또를 서울에서 만날수 없을까 하는 기대 속에 살고있다.

많은 것을 포함하면서도 즐기게 하기위한 볼거리 장 쪽또를 발레리가 "장 쪽또는 육체적으로는 허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사자보다 무서운 혼을 가진 사자이다"라고 한 말이 기억에 새롭다.

사실 그 스스로도 '모든 예술은 시로부터 탄생되었다' 라고 하면서 시를 예술의 원천으로 보았고 시를 여섯개의 시로 구성되었다고 여겼다.

제1의 시는 시 자체로서의 시, 제2의 시는 소설시, 제3의 시는 극시, 제4의 시는 평문시, 제5의 시는 회화 미술 조각 및 사진의 시, 제6의 시는 영화 시라고 규정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는 20세 되던 해 처녀시집 '알라딘의 등장'을 발표하고 시인으로 출발하여 소설에서 희곡을 거쳐 평론을 쓰고 연극도 연출하였으며 무대 장치도 디자인하였고 영화감독에 내일의 인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었던가?

그래서 후에 장 쪽또를 가리켜 '비둘기와 조개와 장미의 시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시상에 대하여 '꿈 길에서 하늘의 천사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다'라고 까지 극찬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쪽또는 분명 욕심쟁이였고 고집불통이고 용기와 패기에 넘치는 젊은이였으며 시의 세계에 살다가 예 술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신세대들은 어떤가? 무엇을 하는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만나 보면 분명 무엇이 도전하는것 같



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뒤에 가서는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게된다.

목errick

- 축하합니다
E-L-F 소년학교 종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술제도 잘 치르시길 빌겠습니다.
- E-L-F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 불교합창단 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 Bean, Two
- 진영아!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들 오늘날만큼은 모두다 잊어버려라. 축하한다 너의 생일을(10.31)
-90 K-E-H
- 상훈아!
너의 사랑스런 혜지의 백일째 만납(?)을 축하한다.
- 미래의 사위감
- 선재와 규훈이의 제대(해제가 아님) 1주년을 축하해요(11월3일)
-조지
- 우리와 "은주"가 생일이라네요. 19번째 95나구요? 야노 94예요. 사진 축하로 미리 알려요. 11월 10일 입니다.
-동문회장
- 11월 일곱번째 날 내가 이사랑 하는 리본이가 태어난지 투투(22)가 되는 날이예요. 리본아! 3학년이

동/악/광/장

- 우리 노망 정현용의 30번째에 가까운 생일 아니 생신을 감축드리옵니다.
- 안이
- 지교의 '알리' 은주 탄생일이 11월10일인데, 미리 알아두라구 이렇게 적어 보니다. 생일 겁나 축하해유~
-Bean, Two
- '바라봄과 실천 그 조화를 위해'哲學科 학술제를 위해 수고한 은정·숙경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슬승·강범도 포함해서.
-동호
- '사회학도의 밤' 너무 좋았어요. 시토틀 뉴스, 미구만 수퍼서트를 비롯한 모든 행사 캠페인였어요. 준비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특히 왕재오 씨, 그리고 양교수님 너무 멋졌어요.
- 사회95 선영
- 알립니다
즐거게 체육행사 11.17에 있어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체육행사 기획단장
- 단국·진선 동문회 11월10일(금)5시. 만해시비. 안건·이연이형 결혼식
-동문회장
- 우리 사랑하는 수석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 열심히 하세요.
-95 11기 손사사
-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 단결 일년 12대 학생회 여러분들 마지막 혼전을 다해 멋있고 개운한 끝맺음을 합시다!!
-피마대장
- 그리고...
국어교육과 95들이 힘이 없네요!! 모두들 힘내고 행복하라고 해주세요!!
-예쁘니 95
- 군대갔던 예교94 김병윤선배가 오셨다. 우리는 5시간 동안 기다려 줄사려 간다. 기분좋다.
-예교95학번 남학우가
- 승근, 요즈음 들어 네 얼굴에서 어두움을 읽는다. 가을이라 그런가? 넘겨지 않으니가 근심걱정 덜고 밝은 너다운 활한 애비가 되도록 하거라.
-여전히 호부호형을 원하는 SOO
- 태연이가 Computer 샀는데 컴퓨터 망한다. 열받는다 씨~이
-분노하는 현여를 일동

알립니다

- 11월16일 체육관 17:40분 바라밀의 마지막 공연
-후배 협주가
- 11월8일 수요일 수학교육과 일일 찾집해요. 어디서:코페르 많이 오세요.
-수교3
- 11월14~16일 국문과 "시선"시화전 열립니다. "시"보러 오세요.
-시선회장
- 미래노동자의 참된시작, 민주노동추원단에서 11월11~12일에 서울연세대에서 열리는 만·노·총 출범식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총학·총여 인대상대로
-민·노·총추원단
- 11월9일 제4회 마음소리 수화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소리 회원 여러분 수고 많죠!!
-마음소리4기
- 그리고...
경수야 몸 건강해 잘 지내고 있잖아. 퇴소식때 가서 보자.
-월리서 지켜보는 육이가
- 12일은 로타렉트에서 양로원 방문을 갑니다. 일일찾집을 찾아주시고 문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R-A-O-A일동
- 비자구 수사철제! 변혁적 민주노동 건설 우리의 몫입니다. 미래노동자 3차 개입실천으로 변혁적 민주노동건설을 하세요.
-민중시대를 향한 사람들

온방골

- 축하합니다
문수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 펼쳐질 네 인생에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길...
-찬이와 호
- 축하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은환아!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M-J
- 정확아! 이 마음 다해서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전 한 살 더 먹었으니 좀 좀 축이고, 이 잠망아! 전산과의 잠망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잠순이
- 영리대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영서비
- 지났지만 10월28일 현민이 생일과 10월31일 화진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 가정교과와 화연언니 논문발표 축하해요.
-J-M
- 미성 선배님의 학교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떤 후배
- 우리 귀여운 후배 안미경의 birthday를 축하하며... 항상 건강해라.
-필하모니선배들
- 내 소중한 사람 은환아!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M-J
- Bear 댕이 현씨의 2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머지 공

근로자 파견제·변형근로제 본질과 대안

자본의 무절제한 의도 통제할 수단 가져야 한다

정부는 지금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가 서로 연결되는 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의 수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모집 채용 훈련 비용 등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파견직을 쉽게 풀일 수 있다'는 논리로 근로자파견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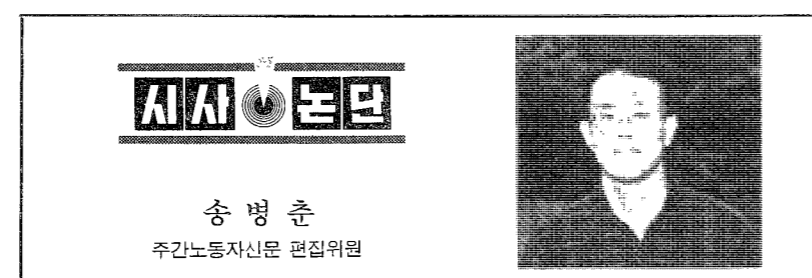
이런 두갈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통산부는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그리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와 변형근로시간제는 모두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기업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 동안이든지 쉽게 노동자를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우선 근로자파견제도와 변형근로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제'란 어떤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주문으로 단기간 동안 수요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이들을 공개로 집하여 채용하고 훈련시킨 후 업무에 배치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전문회사로부터 적합한 기술능을 보유한 인력을 즉시 공급받아 업무에 배치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력전문회사로 돌려 보내는 제도이다.

'변형근로제'란 하루 8시간, 주44시간의 노동시간 기준을 변형하여 하루중 사업및 종업 시간을 자유롭게 정한다거나, 주당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나 달 뒤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송병춘 주간노동자신문 편집위원

한 조직화도 어려울 노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과 불법적인 파견사업자를 엄단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논리대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어떠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부당해고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이미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되었다면서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잘 발달돼 있고, 민간 취업알선기관 역시 잘 정비돼 있어 중간착취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임시직 노동자들도 사업주의 탄압 때문에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임시직 파견노동자들도 충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더구나 선진국의 근로자파견법은 우리나라 노동부의 법안에 비해 훨씬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

기업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도록 돼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반드시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파견근로 기간을 우리가 1년으로 한 데 비해 선진국은 3개월로 한했다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제 합법화는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기업측에 임금비용을 절감하는 단기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벌이나, 외국 인력전문회사의 국내진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은 인력공급 시장을 쉽게 독점하게 될 이들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다면, 공공직업안정기능을 중소기업자 위주로 정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제와 변형근로시간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조치들을 풀어 줌으로써 자본이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자본은 항상 자유를 열망한다. 자본은 자기증식을 위해 항상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노동자를 버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와 결합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소한 자본의 무절제한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즉 법적 규제와 노동조합의 경영인사권 참여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사설

공명한 선거를 기대하며

학생회 선거가 한창이다.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를 내지 못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총대의원과 동아리연합회는 이번주에 투표 실시하고 총학생회와 총여는 지난 3월 1차유세를 치렀다.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또한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단과대선거를 보면 대체로 단일후보였다. 정책과 공약사전보다는 참여를 호소하는 측면이 더 높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와 더불어 투표율은 대체로 저조했다. 한편 경선이었던 곳은 흑색선전의 남발로 인해 기성정치권을 발붙게 했다는 학생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돈에기만 나오면 민감한(?)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정책선전이 아닌 관심끌기식의 주장은 우리의 눈치를 벗어난 소모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선거후의 후유증과 학생회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는 정도를 벗어난 발언들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8대총학생회선거 1차유세는 많은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각후보자들의 사전 유세준비가 부족했음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학생회의 위상과 선거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했다. 학생회는 학생대중들의 자주성에 기초한 이해와 지향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조직이다. 또한 선거는 내년의 학생회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 제시하는 정책생상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학생회가 되어야 함을 물론 선거가 학생회강화에 복무해야하며 결코 약화시키는 발언이나 꺾어내리기식은 자제해야 한다. 문선역시도 각후보의 주장을 표출, 내용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유세준비의 성의부족은 학생회에 대한 고인부름 의심하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한편 1차 유세는 '학생의 날'이었다는 의미와 함께 5·18집회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5·18'의 의미를 공감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고 각 후보자들은 '5·18학생자치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실천집회에서는 함께하는 이가 많지 않았고 처음에 참가했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집회중 보이지 않았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말뿐인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선거시행세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무시하거나 가벼운 주의를 반복된다면 감을 잃고지고 공명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운동본부에서 시행세칙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또한 중선위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올바르게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것 기대하며 제법 추운날씨가 학생회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통국반평



강성수

집값은 아이는 눈을 감는다

◆전대기권 사회분과 공동기획시리즈-각 정치세력의 총선전략

총선앞둔 정계 대응구도 표면화

근본적 불안정한 정치지형·대선대비 최종구도 형성될 듯

국민회의는 민주당의 분열과 DJ의 정계복귀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호남과 아태재단 중심의 인맥에 의존 DJ 중심의 전일적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지역당이라는 여론의 비판과 일반대중 속에 존재하는 내각제 개헌 및 보수화 경향에 대한 반발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 게다가 노태우 비자금 파문의 과정에서 DJ 스스로가 인정한 정치자금 수사의 비도덕성으로 인해 반민자지역정서를 동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회의로 신당창당이 현실화된 이후 반DJ 반신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도 진보민주당내에서 구당파와 이기택 총재간의 당권쟁탈을 위한 내분이 동시에 가속되었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의 사회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게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구체적으로는 지역기반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과 3당이 고착화한 지역적 기반을 뚫고 새롭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차기 총선에서 세력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보민주당과 통합할 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정국에서 북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정치세력의 총선대응 구도 및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형성하는 정치지형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의 정치지형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둔 각 정치세력의 최종적인 정치지형은 다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의 결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줄 것이다.

이인영 (전국연합 정치국 부국장)

총선을 앞두고 각 정치세력의 연합집단과 총선대응 구도가 표면화되고 있다. 15대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각 정치세력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성 정치세력 및 신흥 정치세력의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을 살피고 또한 그들의 총선대응 구도를 간략히 살펴 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참패와 삼총화점의 붕괴 이후 민심수습과 민정계 포섭을 위해 김윤환대표 기용을 비롯 민정계를 당직 전면에 포진시킨 바 있다. 5·18 관련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판정에서도 보이듯 우선은 광범위한 보수세력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강삼재 사무총장의 기용과 손학규 대변인의 기용을 통해 세대교체의 개혁적 이미지를 가미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속에 터져나온 비자금파동으로 인해 노태우 비자금조사와 사법처리 불사 등의 방정에서 보이듯 일정계 6공과의 단절을 통해 개혁과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의 분열과 DJ의 정계복귀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호남과 아태재단 중심의 인맥에 의존 DJ 중심의 전일적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지역당이라는 여론의 비판과 일반대중 속에 존재하는 내각제 개헌 및 보수화 경향에 대한 반발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 게다가 노태우 비자금 파문의 과정에서 DJ 스스로가 인정한 정치자금 수사의 비도덕성으로 인해 반민자지역정서를 동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회의로 신당창당이 현실화된 이후 반DJ 반신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도 진보민주당내에서 구당파와 이기택 총재간의 당권쟁탈을 위한 내분이 동시에 가속되었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의 사회

Advertisement for KCC (Keumkang Chemical Co., LTD.) featuring a stylized figure and text: '미래로 세계로 초대합니다', '신입·경력사원 모집', '1.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2.전형방법', '3.제출서류',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KCC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기획 시리즈 (2회)

지역봉사와 대학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 서울중구지역 소외된 이들의 실태에 이어 경주지역의 실태를 게재하고 지역봉사활동이 갖는 의미와 대학의 역할을 되새기는 글을 실었습니다.

박경일

(인문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어야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력있는 복지사회가 된다"면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정부의 힘 이외에 상호부조활동, 자원(사회)봉사활동 등 민간부문의 힘을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단체의 복지투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통한 '민주화'와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두바퀴를 달고 달리는 수레라고 비유한다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두바퀴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나 생명이체 있어서 활력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실태를 보면 미국의 경우 성인의 54%가 주당 4시간의 자원봉사 봉사활동을 하고있고, 영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의의와 대학의 역할

지역 봉사 활성화 대학이 앞장 설때

학점 인정·봉사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 지원 필요

국의 경우는 51%, 일본의 경우도 전국민의 20%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국민 중 현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의 비율은 5.4%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봉사가 갖는 의미

그러하여 정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정(공동모금법과 자원봉사진흥법안)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대학입학 점수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봉사 학점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 채용시 사회봉사 경력을 특별 인정해 주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부심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운동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대학이란 진리탐구와 교육 및 연구기관

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봉사기관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은 지적, 물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란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 집단,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 사(公私)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지적, 물적자원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생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19세기 후반 영국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런던지역의 빈민들에 대하여 몸소 빈민가에 직접 거주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였던 예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양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은 모금을 하여 세계 최초의 Toynbee Hall이라는 인보관(隣保館)을 설치하여 성인 및 청소년교육,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대학의 봉사는 시대적 요구

현재 우리대학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생 보호선도위원 자원봉사대 및 학생회 차원의 자원봉사부가 구성되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인문대학 송익규 주임의 조사는문에 의하면, 1992년 경주지역 대학생들은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강조하였으며, 본교의 경우 의료 봉사와 교육봉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 의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제도적 장치로 보나, 프로그램



◇대학이란 교육 및 연구기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개발, 주민과 협동하는 봉사기관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캠퍼스 상으로 보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작 현실적 차원에서는 자기자신의 이기심(자기중심적 무책임, 지속성 결여 등)과 심리적 갈등(전문성, 체계성, 유인 동기 부족)등으로 인하여 봉사활동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가족이나 학교,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정부의 '선정정 후사회보장'의 논리에 의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분위가 조성 △지역봉사 경력의 사회적 인정제 △각급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의 교육시간 할애와 성적변영 △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포상제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봉사단체의 과학적 관리와 자원봉사활동 조정자의 양성 등 전담 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S Eliot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에는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으며 그것은 복도와 출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흐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세계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각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조장하여, 크고 작은 지역사회봉사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학문적 도장(道場)으로서 시급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등락도

비자금과 지원금

"늙으면 죽어야제, 나야 살만큼 살았네. 이 늙어간대 신경 쓸 필요없다카이".

생계비로 정부지원금 한달에 7만8천원, 오가다 만나 갈아사는 할아버지의 발발로 버는 돈 1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말열(72세) 할머니. 성긴동 외곽에 사는 이 할머니의 집을 허물한 초가의 두령 남짓한 딸그대로 손바닥만한 방이 전부이다.

벽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다고 바퀴벌레 먼지가 가득 쌓여 발 발기가 어색한 방에 누워있는 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 이라곤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손으로 피우는 담배.

이 할머니에겐 법적으로 4남3녀의 자식이 있다.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막내 아들 래미는 대학까지 나온 귀한 몸이 라이카"라며 애꿎은 자식 자랑만 한다. 한달에 한번쯤 손바닥처럼 왔다가는 자식 자랑을.

"있으면 먹고 없으면 팔지"라며 빈곤한 생활을 체념하듯 내뱉는 할머니 말씀에 동행한 학우는 "부모의 마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해하려 하는데 자신의 배를 곯아먹기

운 자식에게 찬밥신세 당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왜 모르는지"라며 가슴아파한다.

쌓여있는 빨래를 보며 몸을 뭉뚱하게 치를 생각만 간절할 할머니는 "내같은 사람이야 대소변도 혼자 못가는데 요양원에 가서 뭐하노"라며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말한다.

자식이 있으나 자식도움도 못받고, 정부지원금도 최저생계유지조차 힘들게 한다.

"노대통령이 비자금에 연루된 4천원을 좀더 내는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기구 설립, 기금조성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들의 자립적 생활에 커다란 윤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우리 사회는 자각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세대를 지나 다른 세대로의 교체기로서 서있는 이들에게 국가는 세상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또다른 학우는 현실책을 비판했다.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구조가 사라지고 소외된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때는 언제쯤..."

(송선영 기자)



◇경주지역 소외된 이들을 찾아

걸잡기식 행정에 눈물짓는 노인들

지자체 불구 복지정책은 '제자리 걸음'만

석장의 들녘에 쌓여가는 나락들의 중요성을 느끼지도 없이 한계를 해결할 식비와 잡자리를 찾아야할 이들이 있다.

우리에게 그들이 TV나 동사무소 포스터에서나 볼수있는 대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보면 가까운 주변에서 지역과 사회의 관심밖에 유출된 채 우리의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5천187가구에 1만2천46명으로 나타났다.(10월말 발표 95년 생활보호대상자현황) 하지만, 이만한 수치의 통계일 뿐 통합된 읍, 면지역을 포함하면 실제 수혜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학교와 접해있는 성긴동(석장, 금정포항), 동천동은 3백18가구에 8백70명으로 경주의 타동과 비교, 생활보호대상자는 20~30명 정도가 많다. 이는 학교가 들어서기전 경주지역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경주시(시장=이원식)가 주관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정부지원금은 타지역과도 비슷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나아질 기대를

가졌지만 지방예산중 사회복지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하는 역할은 단지 복지시설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매결연정도를 지원하는 정도로 이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1백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주시가 한달에 한끼씩만 재가 장애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8세대당도 직접 시장이 방문하는 '행사'를 가진다고는 하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최저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보호대상자에겐 실질적인 외부봉사의 힘이 미치는 영역은 미진할 뿐이다.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경제적 도움이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라고 밝힌 사회적 한 직원의 토로는 시장역시 복지정책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나 현상원은 그렇기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복지계장 이용

우씨는 "지난해 공무원세무비리로 인해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되어 자체적 모금에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성긴동사무소 담당자 역시 "형편을 뵈면 알면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을때 가장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해 현재 시장국이 지난 행정의 달래마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시가 주관인 된 보호대상자 후원자들이 대부분이 소년, 소녀가장쪽에 치중되어 있다.

소년 소녀가장결연은 현재까지 1백10세대 1백78명으로 자매결연 대상자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소극적 지원이 대부분이며, 시에선 후원자들이 대상자에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라는지를 파악하지도 못한다 고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노인들에 대한 후원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긴동에서 12년째 식당을 경영하는 후원자 김씨(47세)는 "소년, 소녀가장을 10년째 돕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고, 노령으로 인해 잘못되거나 더 큰 후사를 치를 것 같은 마음에

노인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겸연쩍어 했다.

성긴동, 동천동내 지정된 노인수당 66명.

이들에게 정부지원금은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성긴동에 사는 고혈압 증후군자인 조석금 할머니의 경우는 이 치료를 위해 7월 약값비로 15만원을 써야하나 현실여건상 치료받을 생각을 못한다.

복지국이 간섭을 약속했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복지정책은 지방으로 몰수록 더 허술해지고 지방자치제이후 올린 예산들은 부지심 건설 예금으로 집중되어지는 현실이다. 지역사회의 이웃을 돕는 역할은 민간단체가 지는 것이라 책임을 넘겨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2차 소주방에 이은 노래방 찾기에 고민할지도 모른다. 5분거리도 안되는 곳에있는 소외된 이웃들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지부하면 서.

(이형주 기자)

21세기 지구촌의 주역 -

진로가 당신을 찾습니다

인간중심, 신용본위, 사회책임 - 71년 변함없는 신념으로 국민의 걸음치켜올린로가 21세기 세계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위한비장의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제패를 꿈꾸는 당신, 진로로 오십시오!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 집 학 과	채 용 회 사	모집인원
관리사직	상경, 법경, 어문, 인문사회계열 도시계획학	(주)진로, (주)진로종합유통, (주)진로정보서비스, (주)진로소프트, (주)진로정보서비스, (주)진로종합유통	약 130명
전 산 직	전산관련학과	연합전선(주)	
방송 엔지니어	신분방송학, 어문, 상경, 법경, 인문사회	(주)GTV	
송 기 메 러	전자공학	연합전선(주)	
기 술 직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전자공학, 식품공학	(주)진로, 연합전선(주), 진로전선(주)	
연구직	건축공학, 산업디자인관련학과	(주)진로종합유통, (주)진로소프트	
영업 직	주류관련(식품공학) 수처리관련(환경공학, 화학공학 고분자화학)	그림종합연구원	
*단, 연구직은 석사학위 이상자로 병역특례 가능함		(주)진로, (주)진로종합유통, (주)진로소프트	

2. 응시자격

(1) 68.11 이후 출생자로 96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대학원 66.1 이후)
 (2) 4년제 정규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단, 연구직은 석사학위 이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영업부문은 전공제한 없음)
 (3) 병역 또는 면제자로 예외 여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정보 통보)
 (2) 2차 직무능력검정/TOEIC
 (3) 3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당 그룹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 포함)
 (3) TOEIC영역표(11이내 성적) 및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원서교부 및 접수

(1) 기간 1995년 11월 8일(수) ~ 11월 15일(수) 09:00~17:00 (단, 요일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3 진로인수센터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진로유통센터 옆/서울은행 서초지점 입점건물6층)

6. 기타

(1)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규에 의거 우대함
 (2) 유년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룹기획조정실 인사조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년 02) 520 - 3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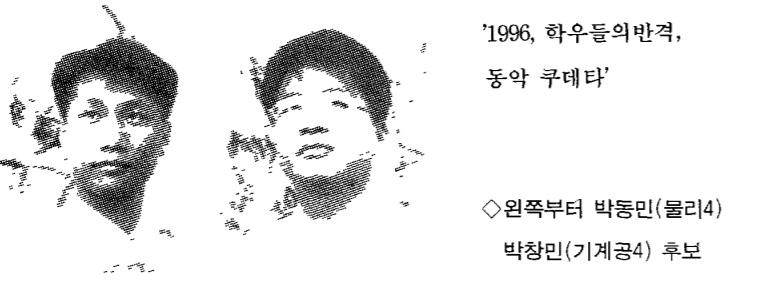
진로그룹인력관리위원회

제28대 총학생회 후보자들에게 듣는다

본사에서는 제28대 총학생회 선거를 맞아 각 후보자와 공동질문을 가지고 본사 회의실에서 유병문·황인구 후보 및 유영하·김보현 후보와 개별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박동민·박창민 후보는 후보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개표순간까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질문1** 제28대 총학생회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질문2** 주요 정책과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3** '98년도부터 본교는 제3캠퍼스로의 분산이전 및 등록금차등제 실시,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은 대학총합평가제, 학부제의 실시로 본교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만약 제28대 총학생회를 이끌어 가게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4** 본교는 내년도부터 학부제로 신입생을 뽑게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학생회의 모습과 강령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병문·황인구 후보



'1996, 학우들의 반격, 동악 쿠데타'

◇ 왼쪽부터 유병문(물리4) 박창민(기계공4) 후보

질문1 학생회는 지금 많은 산적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우들로부터 소외당하는 학생회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중심에 서고 학우들의 삶과 생활, 문화와 투쟁의 가운데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틀이나 인위적인 사임을 벗어 나야 한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년엔 건설할 28대 총학생회는 더욱 '민중성'을 지향하면서 청년학생의 자율적인 흐름을 통일된 방향으로 모아내는 '자치와 교감', '비판과 연대'의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질문2 학부제 도입과 함께 원격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의견 관철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모순과 진보실현을 위해 민중연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 또한 학생회가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내년도 28대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중심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자율적인 흐름과 질서들을 지원하고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공식적인 학교 강령에서부터 균형적인 학분발전의 보장과 진보적 교육강화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② 학부주의, 감각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적 저항의 문화'로서 대학문화를 일구어 내야 한다. 학내의 문예공간과 문화활동에 대한 물질·제도적 지원을 이루어 내겠다. ③ 학우들과 함께 진출 강화를 마련하고 졸업준비위원회와 취업과의 연결을 통해 학생회가 취업문제를 통렬히 지지하도록 하겠다. ④ 학우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담은 여러 가지 여론 구조와 의견개진 통로를 개설하여 대중정치적 강화를 이루겠다. ⑤ 학생복지 실현에 있어서 최대 다수

◇ 유영하·김보현 후보

질문1 우리 학생회는 지금 두가지 의미로 지리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첫번째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우들의 생활·학문의 요구를 담아내는 자주적 대중조직적인 의미와 두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든지 사회개혁등에 대해 현실속에서 요구받는 점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것 하나도 잘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금의 학생회는 학우들의 요구와 이해를 잘 담아내는데 아주 미흡한 점이 많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도 빈약하다. 그동안 학생회 일을 해오면서 삼풍사태나 충남지역 수해가 있을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것에 많은 부끄러운 점을 느꼈다. 여러문일이지만 학생회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가치로운 일이며 우리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다.

질문2 역사창조와 인간존엄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역사창조는 우리가 5·18문제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학살자를 처벌해서 국민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임무가 아닌가 한다. 두번째 인간존엄은 가장 건강한 지성인이 모여있는 대학사회에서 나와 나가 아닌 우리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역사속에서 현실속에서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큰것으로 잡고있다. 공약으로는 ①5·18학살자 처벌과 4월총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 ②동국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실천하는 청년의 역사창조, 인간의 존엄을 향한 공동체!'

◇ 왼쪽부터 유병문(물리4) 황인구(야간영문3)후보

③생활협동조합 등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④매달 말일일 '동국인의 날'로 정해 대학이라는 공간이 생활·학문 투쟁의 장이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공동체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다.

질문3 우리학교는 새로운 변화시점에 놓여있다. 동악이 6·70년대 걸었던 풍토를 지고 동국발전의 명확한 상들이 있는 상황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경쟁에 물려서 살아갈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 90주년이라는 의미들이 특어나 크다. 따라서 단순히 문화행사로 끝내서는 안되겠다. 이전에 걸었던 우리의 건학이념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돼야 한다. 2천년을 맞이하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대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동문, 재단, 교수, 학생)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면 총학생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마스터플랜을 함께 마련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뤄내는 90주년이 되고 동국의 발전상을 잡아내는 발전이 되도록 하겠다.

질문4 학교와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란 고민아

래 물질적인 토대구축과 제도적인 토대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이것은 분명히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동국발전기금관리위원회 총장이 혼자 뛰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온 동국인이 합의 속에서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물질적인 토대구축이고 제도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바뀌어야 학생회 체계를 위한 발전소위등이 꾸러질 것이다. 이 부분이 선행된 다음, 물론 같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학생회 체계의 운영체계가 많이 고민될 것이다. 내년도 우리의 모습이 계열과 학부, 학과로 구분된 점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와 지금의 학생회와 2학년이후 전공으로 갈때 전공을 균형수 있는 학회가 될것에 건설해야 학생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또한 과학성회는 나름대로 체계 강화되고, 계열화는 과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야할 것인가 고민이 돼야한다. 올바른 학생회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과학성회부터 총학생회까지 전일적으로 옮겨 연구소위를 꾸러 연구 검토돼야 할 것이다.

뜻깊은말

짜고치는 고스톱 ?



윤 청 광

나는 몇 주전 바로 이 지면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을 '가장 큰 도둑들'이라고 지적하고 '군인 무장강도단'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둑놈이었다"고 실तो했다.

5천억원의 비자금도 모았었다. 그는 분명 단군 이래 가장 큰 도둑놈을 했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그의 왕성한 잡식성 식욕이다. 재벌들로부터 수표나 현금만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사채놀이, 부동산투기, 은행이자놀이, 커미션생기등 돈이 생기는 것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다.

'전지 대령'의 화려한 자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도둑놈'으로 전락한 그가 아직도 수속되지 않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벌써 현정부에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3당합당'이라는 아합을 통해 5·18살인잔의 유두머리들의 한판인 노태우의 가말이 밀로 들어가서 대통령후보의 번호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90년 대통령선거때 정세균의 돈을 물쓰듯 쓴 현직관료 민자담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게 아니냐하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정부의 IQ가 아무리 낮아 천치 바보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저 죽을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보다는 차라리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싶다.

기왕에 내친 김에, 기왕에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은 김에, 나머지 호랑이들도 일망타진하고 썩은 정치를 과감히 돌려내고, 정경유착, 뇌물, 부정부패,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결국 김영삼대통령이 '짜고치는 고스톱'은 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5·18광주학살의 원흉들도 그 죄상을 낱알이 밝혀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세워주리라 믿고 싶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고 싶지 않나.

방송작가

◇ 유영하·김보현 후보

질문1 기존의 학생회는 헤게모니 장악, 조직의 확대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데 아닌가 할 정도로 학생회가 학생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있다. 각 과의 학생회는 각 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회가 되어야 하고 학우들의 정치적 목적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학우들과 동떨어지지 않는 학생회로 설 수 있다. 또한 대학 문화의 새로운 창조와 운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 즉 단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서구지향적인 관념으로 묶여지는게 아니고 우리 동대인의 시각으로 동대정신, 동국사상에 입각하여 동국사상을 사회에 펼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동국대학교를 일류대학교로, 새로운 학생회 구조로 학우들이 늘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채워질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자 출마했다.

질문2 우리는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외된 나를 위하여'를 구호로 내세웠다. 지금의 학생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속에서 주인인 학생이 즉, 내가 소외된 것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공약으로는 ① 학생회의 행정, 재정, 예산의 공개 등 열린 학생회를 만들겠다. 우리가 진자로 원하는것은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할 수 있다. 이는 자아인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자아인식이란 우리 동대가 서구 지향의 운동논리가 아니고 동대내의 동국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외된 '나'를 위하여!'

◇ 왼쪽부터 김보현(사자3) 유영하(산공4) 후보

의 혼을 가지고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동국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②학생행정 색상을 통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되고 한 대 어우러져 화합의 정이 되는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에 노력하겠다. ③경제총장이 되어서 경제리버를 하겠다. 불교계 여론 수렴을 위해 관이 벌어질 것이다.

질문3 학생회자체, 총학생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학우들에게 다가가면서 학교의 독주를 막고 건설한 비판으로 동국대학교가 특바로 가게 열릴수있도록 해야한다. 학우들을 중심으로 세우고 학생회 개신, 학사행정 쇠퇴속에서 선별·수용하여 브레이크를 거는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가는거다. 학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방향을 전환시키는거다. 동국발전을 위해 한배를 탄 사람이란 한데 못쳐야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 내면 서로 그것이 다 조화가 돼서 오케스트라 같은 연주처럼 하나의 화음을 이룰 수 있는, 동국대학교의 정열한 파노라마를 이

를 수 있는 그런 큰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가 돌아가는 것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②학생행정 색상을 통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되고 한 대 어우러져 화합의 정이 되는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에 노력하겠다. ③경제총장이 되어서 경제리버를 하겠다. 불교계 여론 수렴을 위해 관이 벌어질 것이다.

질문4 학우들의 열망을 담아내서 단 무이는 계열별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우리과에서는 어떠한 학내체제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우리과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런 강의는 어떻게'는 그 전공·학과와 종합내서인 '강의백서'가 필요하다. '강의백서'를 겨울방학 때 만드는게 가장 시급하다. 이 강의백서는 과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고 총학생회는 이를 이끌어야 한다. 어느 학생회나 이런 겨울방학때 꼭 해야하는 부분이다. 민족대 학으로서 민족혼을 살려서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 그 중심속에 맞춰서 과연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형태인가 많은 얘기들을 들어 다닐 것이며 동악의 제주체가 여론을 모아 공강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신뢰의 쌍용, 세계와 함께

간 큰점은이를 찾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공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불가능을 믿지 않는다. 그뒤에는 성취후의 남다른 기쁨이 있다. 불가능에 도전함으로써 항상 새로워지는 사람, 우리는 그를 쌍용맨이라 부른다.

쌍용에 당신의 젊음을 주십시오. 도전과 패기의 新世界를 드리겠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서	모집학과	인원	
관리사무과	상경계 법경제 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800명	
기술직	기계공학, 금속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자원공학, 재료공학, 산업공학, 환경공학		
영역직	인문·이공계 진화과		

2.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대학원 졸업자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4년제 정규대학 보급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1996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해외여행에 결여자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 직무능력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서류능력평가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원서(당 그룹 요청양식) 1부 • 대학원학내 성적증명서 1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기간: 1995년 11월 3일(수)~11월 11일(토)			
(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3:00, 공휴일은 교부/접수 불가)			
지역	교부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중구 세종2가 영웅빌딩 1층	(02)279-5019	
부산	부산시 중구 동명동3가 영웅투자증권 부산지점(국제화빌딩)	(051)243-0707	
대구	대구시 중구 산격동2가 영웅투자증권 대구지점(영웅빌딩)	(053)423-7700	
광주	광주시 동구 금남동2가 영웅투자증권 광주지점(영웅빌딩)	(062)232-0707	
대전	대전시 중구 신화동 영웅투자증권 대전지점(소정빌딩)	(042)255-9131	
강원	강릉시 옥천동 영웅투자증권 강릉지점(대원생명빌딩)	(039)142-1777	
제주	제주시 일도동 영웅투자증권 제주지점(한일은행빌딩)	(064)52-8877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세종2가 영웅빌딩 18층 원서접수처(지하철 을지로3가역 하차, 2분거리)
* 우편접수시 주소: (우)100-641 서울시 중앙우체국 사서함 4106호 영웅인력관리위원회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여부는 1995년 11월 24일 개별동보 예정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 (02)700-2111으로 확인가능 PC통신 「나누리」를 활용, 「GO SSS」 #41 채용정보란에서 조회 가능 			

7. 직무능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 기초직무지식, 인적성검사 • 일시: 1995년 12월 3일(일) 09:00 장소: 국민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정동동 소) 			

8. 직무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동보 예정 			

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부종인 자는 1995년 12월말까지 전역예정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신체장애를 이유로 채용불공정한 사유를 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회사 인사부 또는 영웅인력관리위원회(270-5017~21)로 문의하실 것 			

■ 모집회사: 쌍용인화, 주식회사 쌍용, 쌍용정유, 쌍용건설, 쌍용투자증권, 쌍용자동차, 쌍용증권, 쌍용제지, 쌍용화학, 쌍용정보통신, 쌍용정공, 남광토건, 쌍용엔지니어링, 쌍용자원개발, 쌍용합부금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 '공주병·왕자병·컴플렉스'에 대해

어릴적 '외디푸스 컴플렉스' 미해결이 원인일수도 있어
외적대상에 대한 사랑이 자신에게로 쏠릴때 나타나

이광현

(외과대 의학과 교수)

요즘 하늘은 그지 없이 맑고 깨끗한데 주위에서는 좋지 못한 소식만 계속 들린다.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이나 삼켜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인격을 갖추고 중임(重任)을 맡아야 할 것을 스스로를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도 아니고 그 자리가 그저 좋았단다. 그러면 다시 재고(再考)해 볼 여지도 없으리라... 이 모두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도덕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로서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린들 누가 믿어 줄 것인가?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참 많은 병들이 있다. 비단 신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많다. 무슨 '한국병'이나, '망국병'이나, '안정불감증'이나 하는 여러가지 용어들 이 회자되고 있고, 각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병들이 수 없이 많다. 이중 요즘 대학생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공주병' '왕자병', 또는 '신데렐라 컴플렉스' '차인표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경우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 하는가? 지나친 사치와 치장으로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이 나 느낌만 강조하고,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울음, 비단, 자살 소동 등으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와 또 다른 한가지 스타일의 사람은 자신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좌절되면 쉽게 분노, 모욕감, 패배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재물, 권력, 아름다움 혹은 마치 신데렐라 공주와 같은 이상적인 사랑을 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한 사람이 지닌 자속적이며 일정한 행동패턴으로, 현실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주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신과에서는 인격장애라고 한다. 이러한 인격장애는 깊이 체질화 되어있고 확고하여 융통성이 없고,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지각(知覺)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비적응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쉽게 사귀 수도 있으나

그런 관계가 곧 깨어져서 관계의 악화를 피할이하게 된다. 일어나 사랑을 하는데 있어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일반적인 신경증 즉, 노이로제 환자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신경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힘겨워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하여 인격장애 환자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설명 정신과에 왔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자신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불만 해하며 피하려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인격장애를 보통 세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속에서 다시 약 11가지정도로 인격장애를 나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특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성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도 있다. 그중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들의 인격분류는 위에서 설명 했듯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설명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후자가 자기에 대해 인격장애를 설명한 것이다. 두가지가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비슷한 면이 많다. 히스테리라는 말은 그리스어 '히스테라'라는 자궁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으며, 자기에라는 용어는 그리스신화 '나르시소스'의 신화에서 나온 말이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어 사람에게 빠진 사내의 이야기다. 두가지 모두 여성에서 많은 경향을 보이며 과시적이며 허영이 많고 남의 관심을 모으는데 몰두하고 타인의 비판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연인으로 부터 상처를 받은 후 이를 호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히스테리성 발작, 즉 충격을 받은후 쓰러진다거나 어딘가 마비되거나 일시적인 정신병적 상태를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매력도 차츰 감소하고 이에 따라 증상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이런 매력의 감소를 못이겨서 중년의 위기를 맞기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쉽게 위반한다거나 약물남용, 성적 문란 등에 빠지기도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보통 역동정신의학에서는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사이에 '외디푸스 컴플렉스'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본

다. 예를 들어 보자.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서, 일반적으로 3세 정도가 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경쟁관계가 되는 '외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소녀는 어머니의 분노가 두려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포기해 버리게 된다. 즉, 자기 밖의 대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서 삼각관계로 자리잡는다고 본다.

요즘과 같이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가정내에서 주부의 주장이 강화되고, 모두 하나 내지 둘 밖에 없는 자식들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자기 자식만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여 잘못이 있어도 꾸중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자신을 억제 하는 방법을 혼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 많아져서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즉, 이런 장애의 상당 부분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정신과의사와 환자의 치료적인 관계가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약물치료보다는 정신과적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자의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다.

달 하나 천가에

온고지신



요즘 우리 주변의 외래문화는 가을 단풍이 온 산야를 물들인 것처럼 보인다.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잔의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외국산표가 붙은 커피숍에 들어가야 하고, 옷한벌을 사도 외국산표가 있는 상가를 찾는다.

다육이 우리들의 의식구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서구적사고의 문제점은 개인주의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는 현대 정보사회에 살면서 인격과 인간다운가치도 물질과 황금에 짓눌리고 갈등과 경쟁만을 앞세우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것을 개발하고, 승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외래문화를 소화하여 자기화하는 방향으로 서구적 합리주의에 의한 체계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우리 선조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계승과 발전을 전승하기 위해서 온고지신(溫故以知新)이란 문구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을 지혜롭게 진리로 승화시켜 인간의식 교육에 이용하였다.

농촌에 가을이 오면 닭이 동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을 잠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이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닭이 알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동지에 알을 잘 보관하였다가 봄이 되면서 알탕이 사는 동지에 알을 여러개 넣어두면 알탕은 동지 밖에 나가서 알을 따듯하게 매일 지속적인 체온을 가하여 계란 내부에 생리적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드디어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탄생한다. 그러나 계란이 알에 체온을 알맞게 받지 못하면 계란은 썩은 달걀이 된다.

다시말해서 옛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면 썩은 고물이 된다는 뜻이다. 옛것을 정성들여 소화하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방법이 온고지신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옛것을 답습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에 맞게 개발하는 서구적 합리주의에 의한 체계적 연구방법을 등한시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외국산표나 현재적 연구방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전통음식인 식혜를 개발하여 세계에 새로운 한국음식을 소개했다가 하면 역으로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피자맛이란 음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음식이 우리 청소년 체질에 비단이나 성인병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상표속에서는 계약문서 하나에 수억원을 주고 다시 전체 매출의 4~5%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 문서속에는 100년에 걸친 피자맛에 대한 연구와 발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이와같이 서구는 우리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적문화 기술을 팔아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정보산업화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것을 좀더 소중히 생각하며 정성들여 이해하고 또 그것을 현대적 온고지신으로 정진으로 한국적 지적 문화기술을 개발하여 우리사회를 정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새로운 재민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병수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있게 분석하여 그 특색을 밝히고 신장이란 면에서 용호영(龍虎堂)등 전위병체제로의 강화를 특색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군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통치기구의 특색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문화단신

◇맑은누리만들기... 광학기학과 다음기획이 주관, 쌍용정유가 후원하며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콘서트.

80년대부터 우리들이 지향하는 노랫길을 걸으며 안치환, 권진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윤도현이 출현한다.

시간과 장소는 1차/11월27일 서울시립대 2차/11월23일 잠천교회 3차/11월24일 서울대 문화관이다.

이번 공연은 노래와 역사, 삶, 자연,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며 노래를 통해 맑은 마음들을 피살리고 나아가 맑은 환경을 가꾸어 함께 누리고자 하며 또 그것을 노래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겨레21 CD-ROM 타이틀 출시... 쌍용정보통신과 한겨레신문사가 지난 4월부터 개발해 오다 1집이 제작 완료되어 출시된다.

한겨레21 창간호부터 70호까지 발간된 모든 기사와 사진, 통계자료, 시사용어 사전을 기본으로하여 각종 시사기획물을 동명산으로 제작, 수록되었다.

총 4천여건의 기사, 6천여장의 사진, 30여분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정보의 충실함과 방대함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수록하여 소장가치와 이용가치가 높다.

가격은 2만9천원으로 쌍용정보통신이 제작·판매한다.

◇채널 식스나인... '최초의 멀티미디어 포털'로써 새로운 장르를 추구하며 '에디션'이 제작한다.

감독은 94년 대중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신인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한 이경욱씨가 맡았다.

'채널 식스나인'의 모티브는 이동방송장비, 컴퓨터, 전자오락게임, LED의와광고판, 비디오, TV를 통해 보여지는 '이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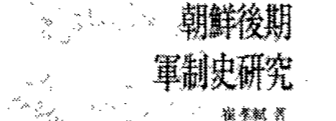
그러나 단순히 웃을 베푼다는 내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선과 허위 가면을 벗겨 보인다는 즐거리이다. (문화부)

◇서평 -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

연구 소홀했던 어영청·총융청·호위청 체계적 정리
"조선왕조 통치기구 특색 파악에 도움"

남도영

(사범대 역교과 명예교수)



최후식교수(국사학과·한국사)가 펴낸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신서원)는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어온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용호영(龍虎營)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저서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후 초기의 오위제(五衛制)가 무너지고 또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만주에서 후금(後金)이 일어나 명(明)을 압박하는 전환기에 처해서 후금과 일본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군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세 아래서 서인의 이해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는 어영청(御營廳)을 비롯한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고 현종때는 훈련별대(訓練別隊) 정초정(精

抄廳)을 두었고 숙종때 조선 후기 주요 군영인 오군영제(五軍營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훈련도감(訓練都監) 수어청(守禦廳) 등을 학계에 알려왔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호위청(扈衛廳) 용호영(龍虎營) 총위영(總衛營) 등 주요 군영의 인혁, 군사조직 및 그 자세한 변천과 실제 전투에 활용된 사실들을 고찰하였고 제2부에서 친명배금(親明排金)을 천명하여 후금과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한 인조대의 국방시책(淸)에 대비하기 위한 현종대의 국방정책, 그리고 당대의 군사사상이었던 이우태(李維泰)의 군사개혁안을 심도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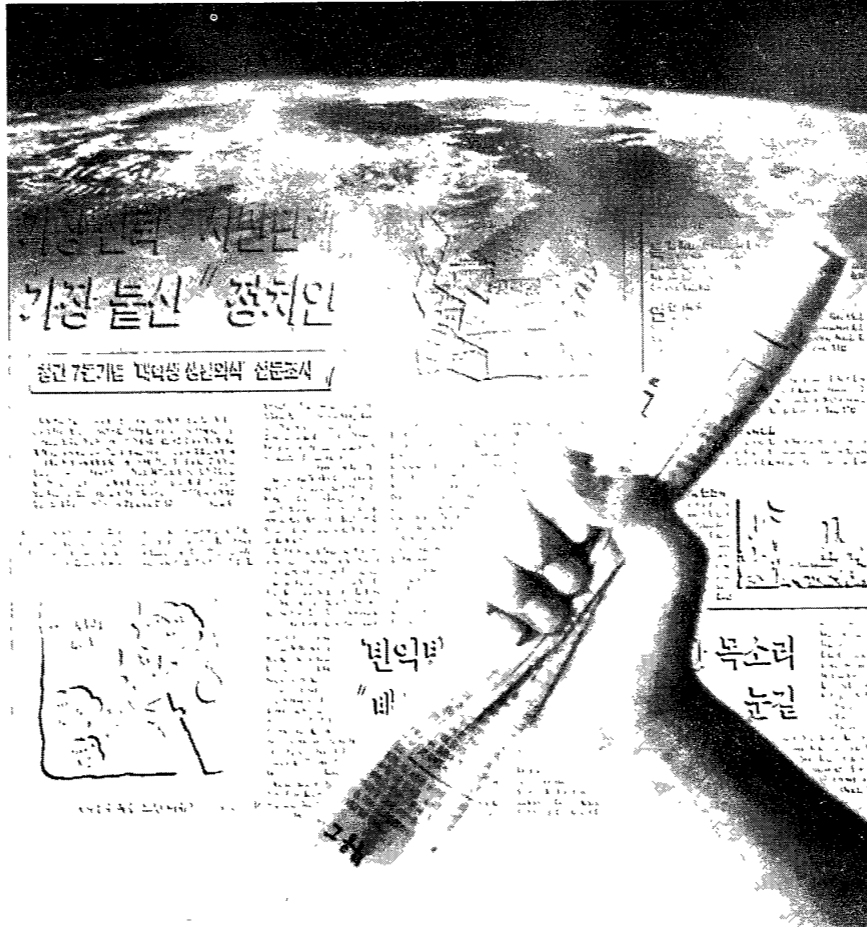
◇최후식교수 지음

신서원 펴냄

포스틸 대학생 기업광고안 헌상공모

포항제철 판매전문계열사 포스틸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포항제철(POSCO)의 계열, 철강판매전문회사인 포스틸-포스틸에서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신문광고 창작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공모자격**
대학 (전년대 포함) 재학생 및 대학원생
- 2. 공모요령**
가. 공모주제: 포스틸의 기업인지도 및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광고작품주제를 자율 선정 제작
나. 공모부문: 신문광고
다. 규격: 5단 37cm, 4색 (4세 이내)
라. 기 타:
● 작품제출시 각부분별 제작담당자의 학교명, 성명, 주소, 연락처 명기
● 공동작품시 4명 이내로 한함
● 포스틸 회사인원만 참여 가능 (학생처에 비치)
- 3. 제출**
가. 공모기간: '95. 11월 1일~11월 30일 (우송시에는 접수마감일 도착일에 한함)
나. 제출처: (130-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일빌딩 8층 포스틸 기획실 홍보팀 (TEL: 3451-9730-9734)
- 4. 심사**
● 심사위원은 사외 광고전문가로 구성
● 전체공모작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사를 실시하여 입상자 선정
- 5. 입상자 발표**
● '95년 12월 초 개별통지 및 사보 포스틸 12월호에 발표
● 시상: 12월 중순
- 6. 시상내역**

구분	대상	수상인원	상금	상품	비고
본상	대상	1	300만원	상패	· 상금은 소정의 장학증서로 증정
	금상	1	150만원	-	
우수상	COPY상	1	100만원	-	
	ILLUST상	1	100만원	-	
	IDEA상	1	100만원	-	

- 7. 기타**
● 공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 작품공모작은 뒷면에 작품보다 사일 4cm에 한 용서우드만 부착하여 제출
● 회사원 및 광고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스틸 홍보팀 (TEL: (02) 3451-9730-9734)으로 문의바랍니다.

고객의 마음 포스틸의 마음입니다
주식회사 포스틸
POSCO Steel Sales & Service Co., Ltd.

포항제철의 계열사인 포스틸은 바빠서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강제품로 국민생활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최고 덕목인 고객만족으로 철강유통 선진화를 이루며 21세기 초우량 철강마케팅 전문회사로 도약해 가는 기업입니다

영학의 패러독스

-서구 문학작품의 영화화 '주홍글씨'

탈식민적 원작 독해 영화에선 안보여



◇어전히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영화 '주홍글씨'의 한장면.

수이다. 문학의 독해나 재창조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중요한 변수인데, 대중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영화매체에서의 탈식민주의적 태도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듯 실기 때문이다. 롤랑 조제 감독의 '주홍글씨'가 호든의 원작을 상당부분 개작했음은 사실이다. 영화가 새로운 해석을 가한 것은 헤스터 프리에 대한 당시 정교도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의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영화는 여전히 식민주의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다.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영화는 백인의 시각을 버리지 않은 채 동정을 담아보낸다. 헤스터 프리와 아더 덤스테일과 둘다 사형에 처해질 무렵 인디안에 의해 구조되며, 결국 이 영화는 둘의 결합만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인디안과 그들의 땅은 위기에 처한 백인 주인공들의 사람과 행복을 위해서 벌어져야 하는, 단지 배정막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인 것이다. 원주민의 땅이었던 미국이 유럽적인 유산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새로운 보수주의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한 것은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가 초창기부터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적 독해는 그런 의미에서 서구제국주의자들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 관념을 전파하는 방식을 되바라치고 대항해는 지방전국주의의 능동적 전략이다. 그러한 비판이 진행되는 한편, 자국민의 시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체적 영화의 창작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숨은 목소리를 당당하게 재현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최근 서구영화 가운데 고전영화를 영화화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 나다니엘 호든의 '주홍글씨'에 밀리 브룬테의 '제인 에어'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작품들은 줄래에 읽으면 고전만 가지에서 벗어나 식민주의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탈식민주의 텍스트의 대상들 이란 점에서 흥미롭다. 서구문학에서 이미 일고있는 탈식민주의 독해에 의하면, '제인 에어'는 토제스의 부인이며 서인도제도 원주민인 '다라방'의 미친 여자'시점으로 다시

읽혀질 수도 있다. 또한 '주홍글씨'는 헤스터 프리와 아더 덤스테일간의 간통에 대한 죄의식을 다른 작품이 아니라, 미국적인 것의 원류로서의 유럽적인 유산과 결별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는 헤스터 프리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헤스터 프리가 사랑했던 아더 덤스테일과 전남편 로저 켈링워스 둘다 종교와 학문으로 대표되는 유럽적인 전통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A'라는 글자는 '간통(Adultery)'의 의미가 아니라, '영국과 결별한 새로운 나라' '미국(America)', 혹은 '진보(Advance)'를 상징하는 'A'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가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



◇국악과(경주캠) 첫 정기연주회 '나눔의 향기'

음악·성악·춤 결합된 독특한 공연 학내외 불교행사서 실력 다지기도 "악기소리로 우리를 표현한다"

국악과 불교의 어우러짐. 국악은 간접적으로 불교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영향만 받아들인 예술적인 면모로의 성장에 정점을 두는데 반해, 본교 국악과(학과장=박상진)는 불교문화대내에 속해있음으로 해서, 불교와의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국악과는 올해 신선행 이제 갖 그 모습을 보일즈음, 모든 부분 불충분한 여건속에서도 이들은 곳곳이 견뎌 노력한 결과,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불교음악계에선 주목할만한 첫 연주회라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악가부(음악, 성악, 춤) 이 3요소가 결합된 공연은 독특한 내용, 즉 '나눔의 향기'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8~9일 오후 7시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회관,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각각 치뤄지게 된다.

이번 연주회 개최 진행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파대포 박영숙 양은 힘든 것도 잊은 채 "우리학교 국악과를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학내외 불교행사의 음악을 도맡아 학교의 일익을 담당해 읍을 기쁘게 하고 다지고, 또한 동계방학기간의 음악캠프 그리고 그동안의 피나는 연습을 통해 이번 연주회는 1년 여간 준비해온 셈이다.

국악과 45명 학우들의 이같은 성과의 우여곡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연습실이 없어 강의실에서 연습하는데 곳곳에서 시끄럽다며 항의가 들어와 연습을 중단하기도 하고, 악기, 실습기자재등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설움을 토로했다. 또한 "우리는 직접적인 목소리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악기소리 등 특유의 표현법으로써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 공연내용은 영산회상, 판소리, 바라춤, 국악관불가, 신모듬(신률 모듬)등 다양하게 펼쳐지며, 특히 바라춤은 부처님께 드리는 의식의 일종으로 법당에서 조용히 추는 춤인데 예전에 악기반주로 춤추던 것을 악가부를 일체되게 한 것이 불 만할 것이다.

국악과, 이제 한대기(?)가 되려하는 새내기들은 직접 대면작업을 통한 홍보를 하는 성의까지 보이며,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늘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는 박상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잊지않고 감사의 말을 덧붙였다.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국악과는 팔복할만한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며 한편 이들을 위한 관심어린 눈길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박요선 기자)

매아리

제2백담사

▲노태우 전대통령이 5천억원의 비자금출처를 조사받던 날, 3백50만원의 빚때문에 목숨을 끊은 한 회사의 이야기가 담긴 한 모듬이를 차지했다. 삼을 포기할만큼 버거운 돈 3백50만원에 비하여 5천억원의 보통사람에게는 헤아리기조차 힘든 돈이다.

▲노태우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 본교이시장인 늑신스님이 노씨를 방문했다. 일간지에 따르면 위로차 방문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마음을 비우라고 했다고 한다. 무수한 소문들에 비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다. 이시장은 연희동 행보에 대해 해명을 해야한다. 한편 월하종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것을 말하며 노씨를 사할에 못오게 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므로써 원할 경우 사할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실제

릴 것을 요구하며 전산원 정보통신교육센터가 일식이 진행되면 해화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를 저지하러는 전산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학생측은 학교당국 책임자가 먹살을 잡고 때려서 전지 2쪽의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학교측은 그냥 밀치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이를 지켜보던 한 불교계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지나칠만큼 가벼운 사태는 아닌 듯 싶다. ▲불교는 진정 자비의 종교인가. 참회를 함후에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하기 위해 참회를 유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정교유착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불교는 더이상 부정자의 은신처나 도피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노씨의 사법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제2의 백담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소)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를 보고

우스꽝스런 일상적 틀 벗어나기 위한 탈출

"재즈만이 지구상의 모든 음악을 다 받아들여 제 몸속에 융해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음악이다." 지난날 21일에 시작해 두달 가량 공연될 서울연극앙상들의 제 8차 정기공연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의 작가 장정일이 한 얘기다.

이 희곡을 완성시킨 연출가 황동진(본교 연영과 강사)씨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상적 틀로부터 헤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꿈꾸는 '우리들의 탈출'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탈출'과 '재즈',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의 주인공 심진래는 회사에서 상사에 쫓기고 집에 와서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에게 들볶이며 살아가는 전형적 샐러리맨으로 등장한다. 원래 사랑했던 여자는 지금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가 됐고 회사동료와 혼외정사를 벌이는 등 정장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상태다. 어느날 한강으로 추락한 헬리콥터를 구경하던 심진래는 우연히 고교동창인 조사명을 만나게 되고 그도 역시 이상에서의 '새로운 탈출'을 꿈꾸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심진래는 부장으로 승진을 하지만 권력이 예상했던 바대로 그가 정신적 방황을 끝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못한다. 마침내 조사명이 차린 재즈 음악과 술, 마약이 넘쳐나는 재즈교회(jazz church)에 초대되지만, 그것이 탈출구라 생각하고 혼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재즈교회 역시 탈출구가 되지못함을 확인한다.

결국은 스티리플을 타고 한강으로 뛰어넘어 그것이 탈출구라 생각하는 심진래. 극중 인물들은 모두 억압하면서 동시에 억압당하는 현대인의 집착할 것만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지구상의 단 하나의 음악'이라는 정정일의 의의와 배우-연출의 몸짓을 느끼는 것도 좋은 기회일 듯 하다.

(이유리 기자)

민주노총 창립축하 공동광고

1천만 노동자의 삶, 민주노총 창립을 축하합니다.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서 시작된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피, 그리고 1천만 노동자들의 맘이 어울려 만들어진 분노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권의 탄압속에도 결코 꺾일 수 없는 합성과 지성은 기개로 당당한 새날을 열어줄 민주노총 창립을 축하합니다.

민주노총 창립에 청년학생이 함께 합니다.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연세대)
오후 7시 '95전국노동자 문화제 (연세대 노천)
새벽1시 취침

12일 오전 9시30분 거리행진
연세대~신촌~서강대~공덕동로터리~여의도광장
민주노총창립 축하공연 (여의도광장)
오후 1시
오후 2시30분 민주노총창립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 광장)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연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를 소중한 추억의 세계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격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내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를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내 생애 다 못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아를 수만 있다면.....

- 전태일 열사가 분신에 임박해 남긴 글 -

민주노총,
칠천만 민중의
미래를
개척할
힘이 됩니다